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특강

대학생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

옥찬호 utilForever@gmail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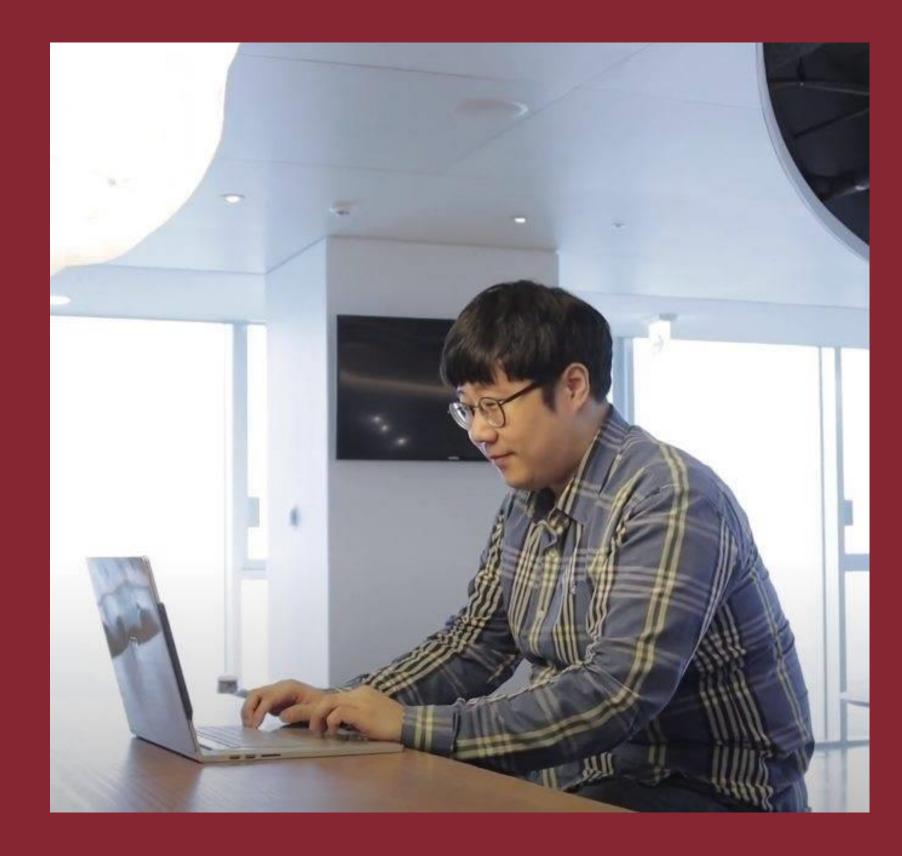
발표자소개

- 옥찬호 (Chris Ohk)
 - (현) Momenti Engine Engineer
 - (전) Nexon Korea Game Programmer
 - Microsoft Developer Technologies MVP
 - C++ Korea Founder & Administrator
 - Reinforcement Learning KR Administrator
 - IT 전문서 집필 및 번역 다수
 - 게임샐러드로 코드 한 줄 없이 게임 만들기 (2013)
 - 유니티 Shader와 Effect 제작 (2014)
 - 2D 게임 프로그래밍 (2014), 러스트 핵심 노트 (2017)
 - 모던 C++ 입문 (2017), C++ 최적화 (2019)

utilForever@gmail.com



utilForever



목차

- 1.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
- 2. 어떤 언어/분야를 공부해야 할까
- 3.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
- 4. 대학원을 갈까, 취업을 할까
- 5. '같이'의 '가치'
- 6. 후배의 성장을 도와줘라
- 7. 코이의 법칙
- 8. 마치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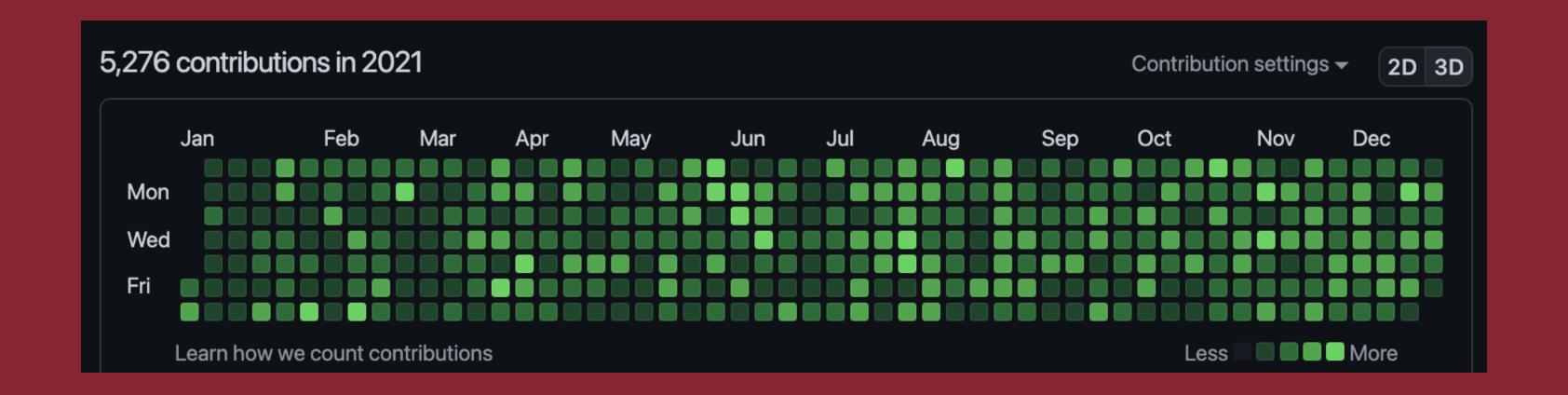
- 시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파악하자
 - 학기 중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
 - 학교 수업을 들어야 한다 (학생들은 보통 6~7과목을 듣는다)
 - 수업마다 나오는 과제나 프로젝트를 해결해야 한다
 (처음 배우는 내용이라 시행 착오를 겪느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)
 - 동아리 활동을 해야 한다
 - 스터디에 참여해야 한다
 - 과외나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
 - 동기, 선배, 후배, 친구들과 놀아야 한다
 - •

- 중요한 일을 먼저 하자
 - 중요하지만, 급하지는 않은 일 vs 중요하지 않지만, 급한 일

	Urgent	Not Urgent
	I	II
Impprtant	(MANAGE) Crisis Medical emergencies Pressing problems Deadline-driven projects Last-minute preparations for scheduled activities	 (FOCUS) Preparation/planning Prevention Values clarification Exercise Relationship-building True recreation/relaxation
	Quadrant of Necessity	Quadrant of Quality & Personal Leadership
Not Important	III (AVOID) Interruptions, some calls Some mail & reports Some meetings Many "pressing" matters Many popular activities	IV (AVOID) Trivia, busywork Junk mail Some phone messages/email Time wasters Escape activities Viewing mindless TV shows
	Quadrant of Deception	Quadrant of Waste

-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
 - 학기 중에는 주말을, 학기가 끝난 뒤에는 방학 기간을 활용
 - 개발과 관련된 행사에 참가해보자
 - 컨퍼런스, 세미나, 밋업, 스터디, 모각코 등 어떤 형태라도 좋다
 - 다양한 개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지식들을 배울 수 있다
 - 개발과 관련 없는 행사에도 참가해보자
 - 독서, 산책, 여행, 전시회, 뮤지컬, 콘서트, 액티비티 활동 등 어떤 형태라도 좋다
 - 다른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대화를 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
 - 사이드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

- 좋아하는 게 있다면 몰두해보자
 - 무엇이든 좋다, 공부와 관련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
 - 우선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자
 - 하루에 많이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,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자





어떤 언어/분야를 공부해야 할까

- 아직 무엇을 공부해야 될 지 모르겠다면 다양하게 해보자
 - 어렸을 때 재미를 느끼거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기 위해 여러 학원을 다니던 시절…
 - 컴퓨터 공학에서 재미를 느끼거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기 위한 여정도 마찬가지다
 - 요즘은 분야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튜토리얼과 예제가 있다
 - 간단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만들기 위한 과정이 즐거운지 확인해보자
 -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, 탐색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자

어떤 언어/분야를 공부해야 할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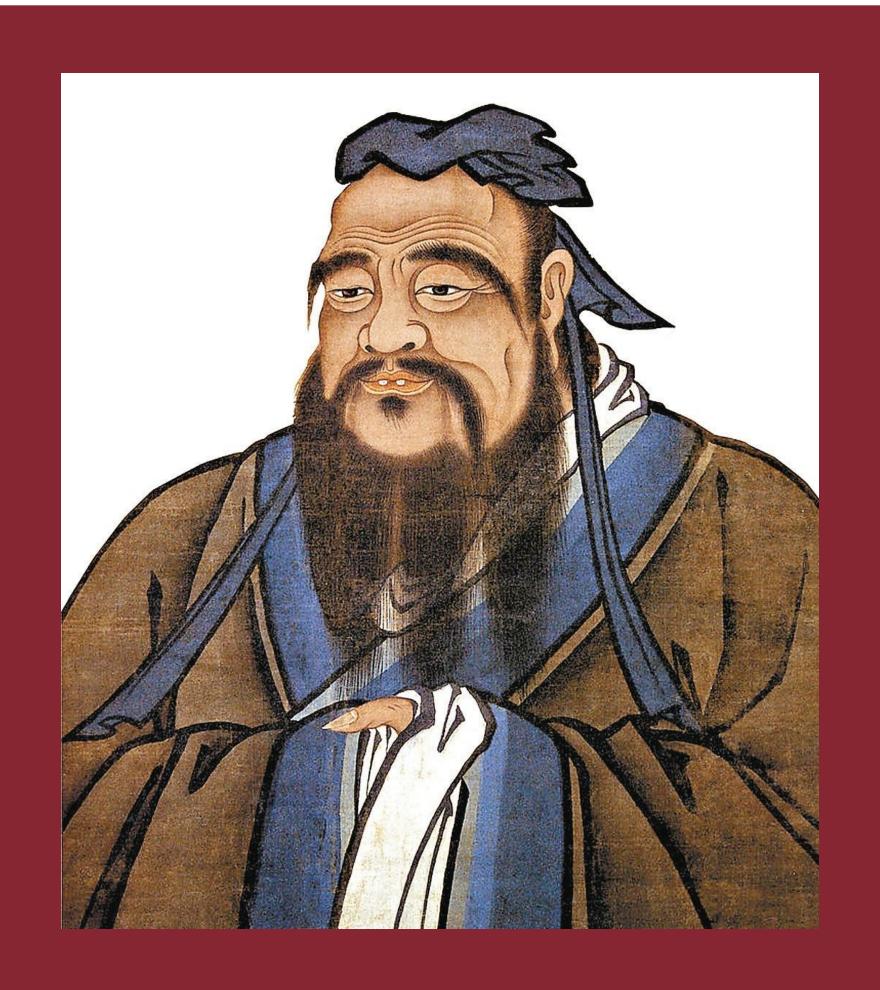
- 개발자 로드맵을 참고하자
 - 각 분야마다 단계별로 어떤 지식들을 공부하면 되는지 정리되어 있다
 - 주의:로드맵에 있는 모든 지식을 공부해야 된다는 강박 관념을 가지지 말자
 - 참고하면 좋은 로드맵 저장소 목록
 - https://github.com/liuchong/awesome-roadmaps
 - https://github.com/kamranahmedse/developer-roadmap
 - https://github.com/utilForever/game-developer-roadmap
 - https://github.com/AMAI-GmbH/AI-Expert-Roadmap
 - https://github.com/floodsung/Deep-Learning-Papers-Reading-Roadmap
 - https://github.com/anacoimbrag/android-developer-roadmap
 - https://github.com/BohdanOrlov/iOS-Developer-Roadmap

어떤 언어/분야를 공부해야 할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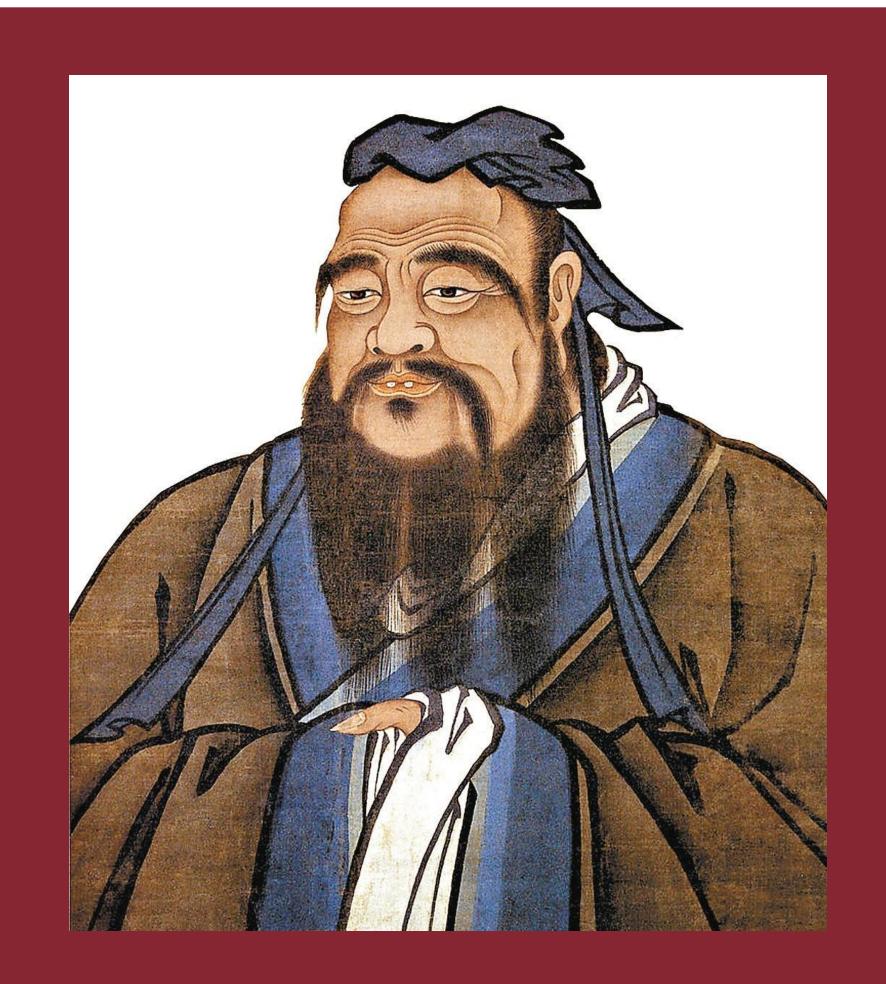
-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깊게 공부해보자
 - 어떤 분야를 제대로 공부해보기로 마음먹었다면, 해당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깊게 공부하자
 -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라이브러리, 딥러닝 모델을 만들 때
 - 정상적으로 빌드가 되어 문제 없이 동작하게 만든다 (Make It Work)
 - 리팩토링을 통해 좀 더 나은 구조로 개선한다 (Make It Better)
 - 최적화를 통해 성능을 개선한다 (Make It Fast)
 -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알고 있으면 위 과정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
 - 또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빠른 속도로 익힐 수 있다



메타인지 '자신의 생각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'



知之爲知之不知爲不知是知也 - 孔子



"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, 그것이 곧 앎이다."

-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?
 - →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을 남에게 설명해본다
- 자기교수학습법 (Self-Instruction)
 - 배울 때는 깊이 있게 사고하기보다 기억하려는 쪽에 집중한다 (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기 때문 → **암기**)
 - 가르칠 때는 100%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할 수가 없다 (자신이 아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 → <u>이해 + 암기</u>)
 - 이 과정에서 부족함을 느끼면 <u>자각(Perception)</u>이 일어난다

- 공부할 때는 흐름을 따라가며 온전히 나의 지식으로 만든다
- 예를 들어, 자료구조 힙(Heap)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자
 - 힙이 무엇인지 정의하자
 - 힙에서 새로운 값을 어떻게 삽입하는가
 - 힙에서 기존 값을 어떻게 삭제하는가
 - 삽입/삭제 동작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되는가
 -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 때 Best-case인가, 그리고 Worst-case인가 또한 그 때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되는가
 - 힙을 구현하는 방식에는 어떤게 있는가

- 공부할 때는 흐름을 따라가며 온전히 나의 지식으로 만든다
- 예를들어, 자료구조 힙(Heap)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자
 - 힙이 무엇인지 정의하자
 - → <u>Complete Binary Tree</u>이고, Heap Property를 만족하는 트리 기반 자료 구조 (Heap Property : 루트 노드가 최대/최소 값이고 Left/Right Sub-Tree가 Min/Max 힙이다.)
 - Complete Binary Tree가 무엇인지 정의하자
 - → Tree가 무엇인지 정의하자
 - → Graph가 무엇인지 정의하자

→ ···

- 점이 모여 선이 된다
 - 학교에서 이론 지식들을 공부하다 보면 생기는 궁금함
 "이렇게 배워서 나중에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까?"
 - 하지만 여러분들은 개발할 때 이미 배운 이론 지식들을 활용하고 있다
 아직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할 뿐이다
 -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서 프로그램이나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,
 그리고 컴퓨터 공학 이론을 배울 때는 각각 점으로 존재한다
 - → 이런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게 된다

• 점이 모여 선이 된다

int values[100][20];

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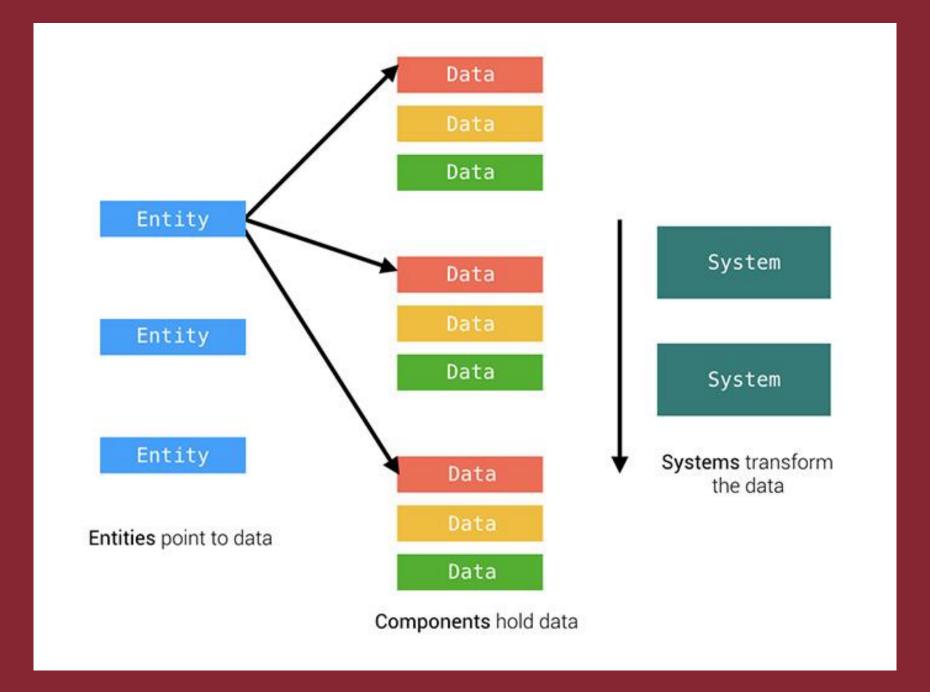
B

```
int sum = 0;
for (int y = 0; y < 100; ++y) {
   for (int x = 0; x < 20; ++x) {
      sum += values[y][x];
   }
}</pre>
```

```
int sum = 0;
for (int x = 0; x < 20; ++x) {
  for (int y = 0; y < 100; ++y) {
    sum += values[y][x];
  }
}</pre>
```

- 점이 모여 선이 된다
 - 컴퓨터 구조 시간 때 배웠던 "지역성(Locality)" 개념을 떠올려보자
 - 캐시가 효율적으로 동작하려면, 캐시에 저장할 데이터가 지역성을 가져야 한다
 - 지역성이란 데이터 접근이 시간적, 혹은 공간적으로 가깝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
 - 공간적 지역성
 - 특정 데이터와 가까운 주소가 순서대로 접근되었을 경우를 공간적 지역성이라고 한다
 - CPU/디스크 캐시의 경우 한 메모리 주소에 접근할 때 그 주소뿐 아니라 해당 블록을 전부 캐시에 가져오게 된다
 - 이 때 메모리 주소를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접근한다면, 캐시에 이미 저장된 같은 블록의 데이터를 접근하게 되므로 캐시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

- 점이 모여 선이 된다
 -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(Object-Oriented Programming)을 대체하는 데이터 지향 디자인(Data Oriented Design)이 지역성 개념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다
 - 데이터 지향 디자인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비해 성능이 뛰어나다





- 대학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성적 관리부터
 - 컴퓨터학과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→ 대학원도 마찬가지다
 - 특히 AI 대학원의 경우 경쟁률이 매우 높다
 - 대학원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<u>평점</u>
 - 학교마다 평점 계산 방법이 다르니 참고 (교양 포함 여부)
 - 평점 4.5 만점에 4.0 이상의 평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

- 대학원에서는 무엇을 하는가
 - 대학원 수업을 듣는다 (학부보다 지식의 깊이가 깊다)
 - 연구실에서 지도 교수님과 함께 논문 연구를 한다
 - 학부 또는 대학원 수업의 TA가 된다 (교수님이 강의하는 수업 또는 다른 수업)
 - 매달 연구실에서 연구비가 지급된다
 - 놀랍게도 방학은 없다 (방학에도 연구는 지속되어야 한다)
 - 학회 논문 제출 마감일이 다가오면 사람이 변한다 (?)

- 체험판으로 맛부터 보자
 - 컴퓨터 <u>프로그램은 구입하기 전에 맛보기 위한 체험</u>판이 있다
 - 둘중고민하고 있다면 현실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
 - 대학원 체험판 = 학부 연구생
 - 취업 체험판 = 인턴
 - 학부 연구생은 학기 중에 할 수 있다, 물론 방학 기간에도 할 수 있다
 - 인턴은 짧게는 방학 기간에, 길게는 1학기 동안 진행하기도 한다
 - 학부 연구생과 인턴 경험을 통해 어떤 길이 나한테 맞는지 직접 확인해보기 바란다

-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
 - 개발을 하고 싶다 → 취업
 - 돈을 벌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 → 취업
 - 연구를 하고 싶다 → 대학원 진학
 -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 → 대학원 진학



- 우리는 혼자 살지 않는다, 다른 사람과 '함께' 살아간다
 - 처음에는 과제나 프로젝트를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,
 학년이 올라가면서 다른 학생과 함께 개발해야 하는 과제나 프로젝트가 많아진다
 - 취업을 하고 나서,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다
 - 누군가와 함께 일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 것, 바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



-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
 -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
 - 모르는 게 있을 때는 물어본다 (바보같은 질문은 없다)
 - 상대방은 나와 '틀린 게 아닌 다른' 생각을 가질 수 있다
 - '공감'하는 태도를 보인다
 - 피드백을 할 때는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다
 -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격려한다
 - 알아야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'문서'로 전달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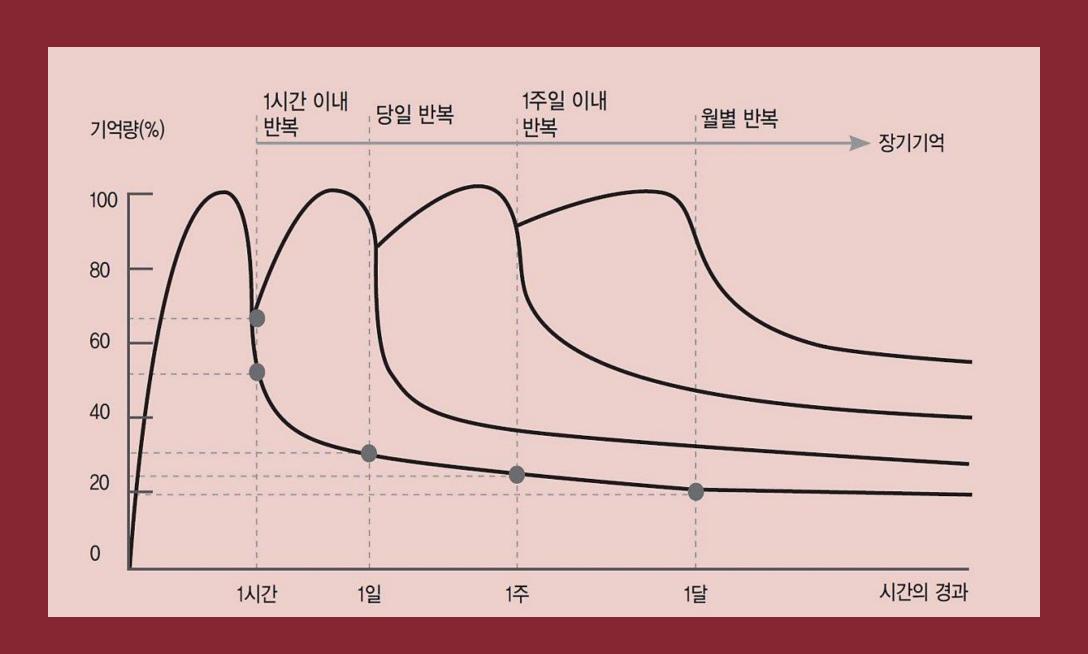
-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는
 - SNS나 메일로 코드를 전달하지 말자 Git을 활용해 GitHub 또는 GitLab으로 관리하자
 - 회의한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자
 - CI/CD를 통해 코드가 항상 정상적으로 컴파일 및 빌드가 되게 하자
 - 테스트 코드를 통해 작성한 코드가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자
 - PR을 통해 서로 코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자

- 같이 개발할 사람을 찾아보자
 - 가까운 동기, 선배, 후배, 친구 중에서 같은 분야에 흥미를 갖는 사람이 있는가
 - 세상은 넓다, 없다면 좀 더 반경을 넓혀보자
 - 개발자 컨퍼런스/세미나/밋업
 - 연합 개발 동아리
 - 온라인 커뮤니티
 - SNS
 - 실제 사례
 - RosettaStone의 경우 학술 세미나와 SNS을 통해 알게된 동생들과 함께 개발
 - CubbyFlow의 경우 SNS을 통해 알게된 동생들과 함께 개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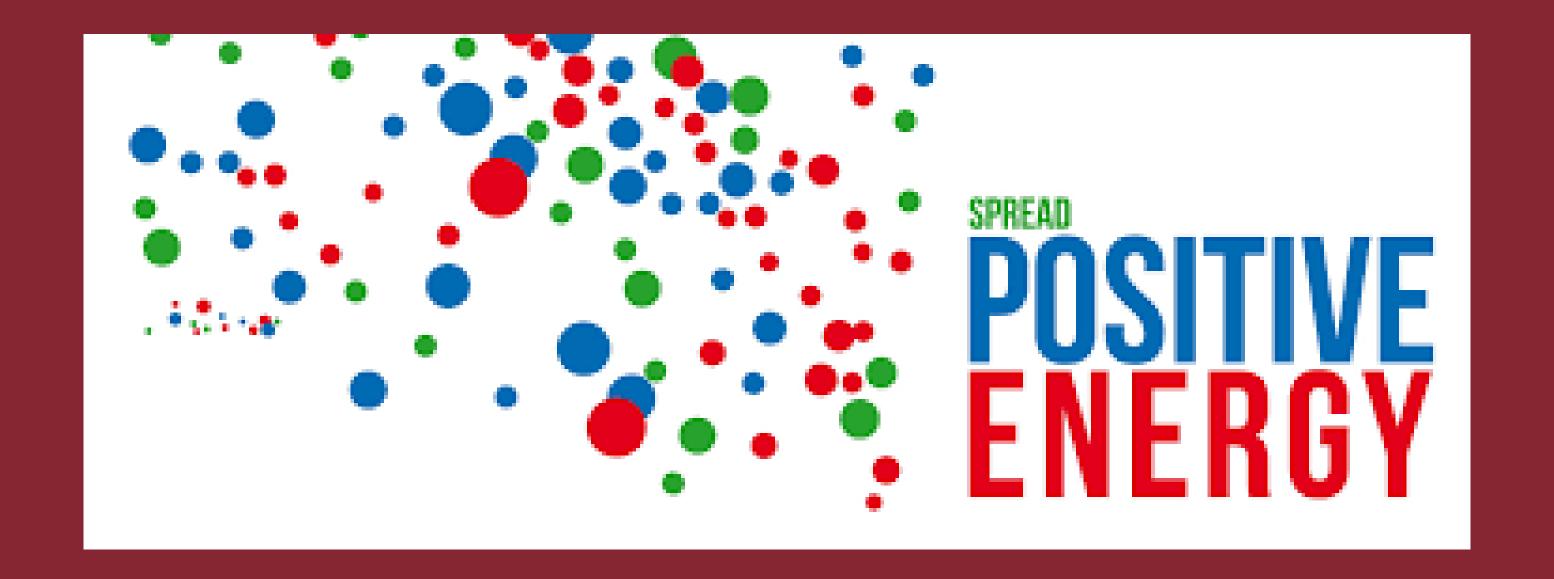


- 어미호랑이와 아기호랑이
 - 아기 호랑이들은 어미 호랑이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한다
 - 학교라고 다르지 않다, 후배들은 선배들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한다
 - 사랑과 가르침을 주는 방법은 특별하지 않다
 - <u>밥이나 술을 사는게 사랑과 가르침일</u> 수도 있겠지만,
 - 후배들이 질문할 때 잘 받아주고 대답해주기
 - 후배들을 위해 스터디를 만들고 가르쳐주기
 -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끌어주기

- 후배의 성장은 나의 성장이기도 하다
 - 어떤 지식을 공부하고 나면,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량이 떨어진다
 - 후배들에게 어떤 지식을 알려줘야 할 때, 내 지식에 구멍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
 - 구멍났던 지식을 다시 채우면서 나도 다시 성장할 수 있다
 그리고 다시 채운 지식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



- 선순환의 고리
 - 선배가 후배들에게 사랑과 가르침을 준다
 - 사랑과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한 후배들은 어느덧 선배가 되어
 다음 후배들에게 사랑과 가르침을 준다
 - 선순환의 고리는 점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다



코이의법칙



코이의법칙

- 코이라는 물고기의 삶은 매우 특이하다
 - 작은 어항에 기르면 <u>5~8cm</u> 밖에 자라지 않는다
 -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서 기르면 15~25cm까지 자란다
 - 강물에 방류하면 <u>90~120cm</u>까지 성장한다
- 같은 물고기지만 어항에서 기르면 피라미만하게 자라고,
 강물에 놓아두면 대어가 되는 신기한 물고기 → 코이의 법칙

코이의법칙



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자라고, 아껴주는 만큼 여물고, 인정받는 만큼 성장하는 법이야. 내가 선택한 주변 환경과 생각들에 따라,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.

- 〈낭만닥터 김사부 2〉 중에서

마치며



꿈은 '명사'가 아니라 '동사'여야 한다

사전 질문

- 인공지능 분야가 아직 블루 오션인지, 아니면 레드 오션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대학원 진학이나 유학을 위한 조언을 자유롭게 듣고 싶습니다
- 성공적인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학부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궁금합니다
- 아직 1학년이라 정확히 무엇을 준비하고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, 어떻게 살아갈 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(노는 거 제외!)
- 대학교 1학년이라면 여름방학에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

사전질문

- 대학원은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나요, 그리고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됐나요
-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준비하실 때 대략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,
 학부 1학년은 앞으로 어떤 험난한 길을 가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
- 개발자로서 일하게 될 때 대학원을 필수로 진학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수라면 석사, 박사 중 어느 정도 수준까지 대학원을 진학하는게 좋을까요
- 석사나 박사를 통합 과정을 통해 빠르게 마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
- 랩실을 컨택할 때 꿀팁이 있다면 말해주세요
- 특별함을 갖추려면 꼭 대학원을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
- 학부 공부와 대학원 연구의 차이가 궁금합니다

사전질문

- 구체적인 취업 방법이 궁금합니다
- 개발자 종류와 역할도 다양하다고 알고 있는데, 데이터 분석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개발자도 있나요
- 지금의 개발 분야에 이르기까지 어떤 진로 탐색 활동을 했나요
- 게임 개발 진로를 위해서 대학교 때 했으면 좋겠다 싶은 활동이 있나요
 그리고 게임 개발 업계의 전망과 대우도 궁금합니다
- 각분야에서 필요한 수학 영역과 그 깊이가 궁금합니다
- 빅데이터 산업의 미래는 어떨까요

감사합니다.

utilForever@gmail.com

https://github.com/utilForever

Facebook, Twitter: @utilForever